〈16〉

Anterior wall lesion 진단을 위한 UGI series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

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
강형옥 · 이원홍 · 손순룡 · 김건중

〔목적〕

예방적 차원에서 사진에 아무런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 조기위암 진단에 있어 anterior wall study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검사방법이나 촬영횟수면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실정이다. 이에 국내 여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anterior wall lesion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을 비교 분석한 후, 좀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검사법을 확립하여 관계종사자들의 공통된 관심과 노력을 통한 anterior wall lesion 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.

〔대상 및 방법〕

1) 1996년 11월부터 1997년 2월까지 본원에서 시행한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조기위암 소견인 경우 위내시경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발생부위가 일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하여 전벽과 후벽으로 분류하였다.
2) 서울, 경기지역의 대학부속병원 및 3차의료기관중 10개 병원의 상부위장관조영술 routine검사를 대상으로 전벽검사 시행여부를 조사하였으며,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 중 prone single study와 double study의 시행여부 및 이때의 조영제 복용량, 압박 pad 사용유무, 촬영상 그리고 촬영횟수 및 film 사용매수를 비교하였다.

〔결과〕

1) 조사결과 전체 조기위암 발생건수는 84건이었고, 발생부위별로는 전벽이 50건, 후벽이 34건이었다.
2) 조사대상으로 한 10개 병원의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전벽검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병원이 2곳이나 되었다.
3) 시행병원중 single study만을 행하는 병원이 2곳, double study만을 행하는 병원이 5곳이었으나, 두 study 모두를 행하는 병원은 단 2곳 뿐이었다.
4) Prone position에서 압박 pad를 사용하는 병원은 1군데 뿐이었고, 충만상만을 촬영하는 병원이 3군데였다.
5) Film 사용매수는 대부분 1장이었으며 촬영횟수도 1, 2회로 나타났다.

〔결론〕

위 전벽에 있는 대부분의 lesion은 prone single compression과 supine double contrast study의 조합으로 묘출해낼 수 있으나, 미세병변인 경우 좀 더 자세한 prone double contrast study를 해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의 조기위암 진단에서 전벽검사의 prone single compression과 double contrast study는 필수적이라 하겠다.

조사결과 조기위암은 후벽보다 오히려 전벽에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그러나 국내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부위장관조영술 중 전벽검사는 너무나도 미약하여 조기위암진단율이 일본의 40%에 비해 10%밖에 되지않는 원인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바, 관계종사자들의 공통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

〈17〉

위 배출시간 측정의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

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핵의학과
원광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*
이춘호 · 이만구*

위 배출시간 측정은 일반적으로 내시경이나 방사선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기질적 질환이 없음이 확인된 위정체(gastric stasis)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유용하게 이용되는 검사방법이다. 검사방법으로는 삽관법(intubation test), 방사선학적 방법,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는데, 이 중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방법은 다른 검사법에 비하여 간편하고 정량분석이 가능하며 비침습적 검사로 반복검사가 가능하여 가장 효율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검사법은 각 검사실마다 검사장비, 검사용 음식물과 검사방법, 분석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, Collins 등과 고 등은 조직의 감쇠에 의한 보정을 전면상으로만 촬영하는 것보다 기하평균을 이용한 방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.

따라서, 본 저자는 dual-head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감쇠보정에 의한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어떤 분석방법이 위 배출시간 측정에 유용한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위 배출시간 측정시 분석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dual-head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상성인 남자 16명을 대상으로 전면상, 전 · 후면상의 합, 기하평균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전면상에서 $T_{1/2}$이 기하평균보다 평균 약 5분, 6.5%(범위;3~18분, 5~31%) 느리게 나타났으며 전 · 후면상의 합은 기하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.

따라서 위배출시간 측정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방법은 기하평균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좋은 방법이며 전 · 후면상의 합을 이용한 분석방법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.